

의복의 보호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임 속 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ve Functions of Clothes

Sock Ja L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985. 11. 6 접수)

Abstrac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systemize the protection theory as well as to supplement the missing theory by organizing various studies on the protective functions of clothes by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of clothing.

Human environments is classified two standpoints: (1) physical environments, and (2) man built psychological environments including socio-physical environments, socio-biological environments, behavioral environments,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s and institution environments.

Clothes acting as a physical protection might be of (1) extreme air temperature: parka; (2) high relative humidity: raincoat; (3) air movement: windbreaker; (4) radiation: space suit; (5) atmospheric pressure: deep sea diver suit; (6) mechanical agent: bullet proof vest; (7) physical agent: (8) chemical agent: (9) biological agent: surgeon's gown, cap, and mask. Also dresses act to support the body comfort, health and the well-being; corset for bad back patient, wrist band for people with weak wrist, bottom half of pressure suit for people with low blood pressure.

Clothes acting as a psychological protection might be of (1) influence of magic and of spirits; (2) moral danger; (3) the general unfriendliness of the world as a whole; a reassurance against the lack of love.

Clothes should provide the maximum of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ull recognition of reality. The reality should aim at the formulation of general laws concerning the most pleasing forms, colors, and styles to suit. The complex physiological anatom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individual personalities.

I. 서 론

의복이란 인간의 외적육체를 수식하는 총체적 진열과 그 총체적 진열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의 외적 첨가물을 통칭하여 의복이라고 광범위하게 Roach-Higgins는 정의하였다¹⁾.

의복과 인간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출생 직후부터 수건을 몸에 두르기 시작하여 죽어서 까지도 옷을 입으므로 William James는 인간의

구성요인을 육체, 영혼, 의복으로 설명하였다²⁾. 이와 같이 의복은 인간의 삼대필수요소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필수적 관계에 대하여 Dicken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영양은 음식이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필요한 영양은 의복이다”라고 하였다³⁾.

이러한 의복착용 동기나 이유에 대하여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관련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복착용동기에 대한 연구는 인간행동연구의 3차 원인 묘사(description), 예측(prediction), 조절(control)의 세요인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행동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이 은영은 의복착용 동기를 필요(needs), 욕망(desire), 공포(fearness) 등으로 설명하였다⁴⁾.

인간 행동의 동기화란 심리학 분야에서도 많이 취급되는 연구영역으로 인간행동을 설명할때 복합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이론적 견해도 다양하다.

의류학 분야에서도 의복과 인간간의 관련성을 취급하는 기원은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내용이 단편적이었고 깊기도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본연구는 국내외의 의류학자들의 보호론을 정리하여 누락된 이론을 보완함으로써 보호론에 대한 이론을 종합하고 체계화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II. 보호론의 기원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것은 100~200 만년전이며⁵⁾ 인간의 의복착용의 역사는 구석기시대 말엽인 5~1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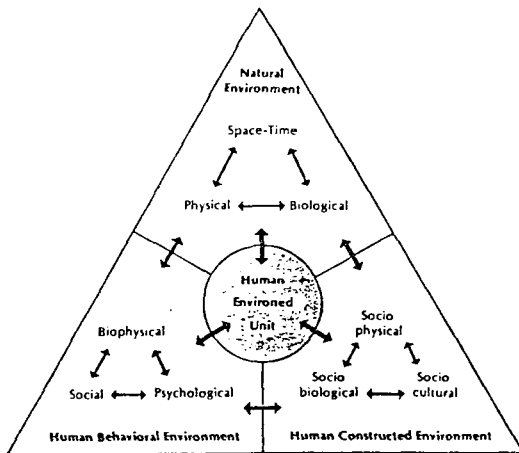


Fig. 1.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¹¹⁾

년전부터로 유원인이 전기시작하면서 인간의몸에 있던 털이 없어지고,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의복이 발생하였다고한다⁶⁾.

최초로 쓰여진 의복의 소재는 곰의털 이었다는 역사적기록이 있으며⁷⁾ 재단은 Neanderthalman 이 최초로 시도했고⁸⁾ magdelnian 사람들이 바늘을 사용하여 의복을 봉제했다고 한다⁹⁾.

이러한 의복의 기원설에 대한 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추적되어지고 있다. 원시인을 대상으로 착용기원을 추적하는 인류학적 조사방법(anthropological survey method)과 어린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심리학적 조사방법(psychological survey method)이 사용되고 있다¹⁰⁾.

III. 의복의 보호론에 대한 이론적고찰

1. 의복의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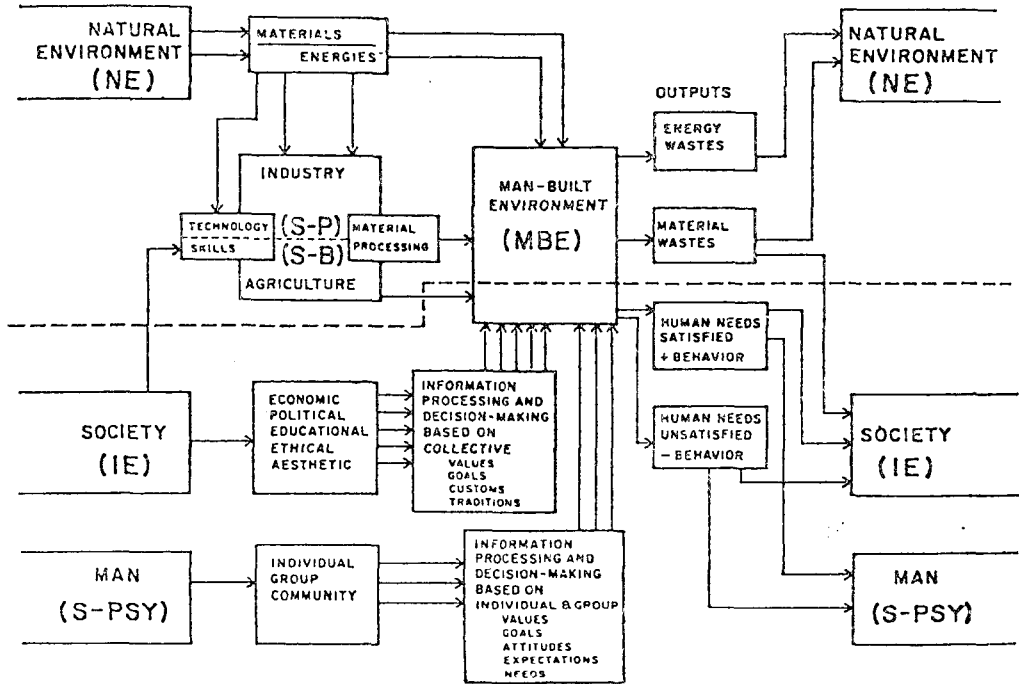
의복의 기능은 육체의 안정성에 이론적 근거를 둔 신체환경기능(physical environmental function)과 사회심리학을 이론적배경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communication function)으로 분류되며 전자들의 의복의 생체적 기능으로, 후자를 장식적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¹³⁾.

신체환경적 기능은 직물의 촉감이 미치는 영향, 색의 자극, 보온성, 통기성, 흡수성과 같이 의복을 하나의 작은 환경 요인으로 생각하는 미시환경기능(micro environmental function)과 의복의 중량이나 디자인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기능(macro environmental function)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기능을 총칭하여 의복의 위생학적 기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의복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에는 표현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이 있으며 표현적 기능이란 의복이 착용자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성격, 신념과 같은 착용자의 내적 욕구를 무언의 수단으로 표현하며 크게는 사회이념, 국제관계 경제추세, 시사성이 있는 사건들이나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인간이 의복을 하나의 생활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복의 도구적 기능이라고 한다¹⁴⁾.

2. 보호설의 분류체계

의복의 보호설은 타기원설과 비교하여 불매 현실적이며 확실한 이론으로 사리에 맞고 납득할 수 있는 이론이므로 학자마다 기원설의 우선순위로 취급하고 있다¹⁵⁾



1. The natural environments (NE).
 - a. Physical or inorganic environments (P).
 - b. Biological or organic environments (B).
2. The built environments or derived environments (MBE).
 - a. Socio-physical environments (S-P).
 - b. Socio-biological environments (S-B).
3. Behavioral environment (BE).
 - a. Socio-psychological (S-pys).
 - b. Institutional (IE).

Fig. 2. L. Bernard의 외계와 인간행동과의 관계¹²⁾

의복의 보호설은 Luther Bernard의 분류체계인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s-NE) 중 신체환경(physical or inorganic environments-P)과 생물환경(biological or organic environments-B)을 의식한 생체적 측면과 인공환경(The built environments or derived environments-MBE) 중 사회물리적 환경(socio-physical environments-S-P) 사회생물적 환경(socio-biological environments-S-B), 행동적 환경(behavioral environments-SE), 사회심리학적 환경(socio-psychological-S-Pys), 공공건물 환경(institution NE)를 바탕으로한 인간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체적 측면에서 보호기능은 의복이 인간의 미시환경과, 거시 환경과의 경계물로서 인체를 NE로부터 보호하며 HBE의 대적환경(hostile environment)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편안성과 건강안정을 위한 육체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적 역할도 한다.

1) 생체적 보호

생체적 보호에는 NE protection, NE-biological protection, hostile environment protection, support of body function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후로부터의 보호(NE-protection)

기후요소중 기온, 복사, 습도, 바람, 기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의복자들은 위생학적 이유에서 권장하고 있다.

의복은 낮은 기후 온도에서 뿐만 아니라 태양의 직사광선에서도 보호기능이 있다.

원시인의 경우 추위를 막기 위하여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현대인들의 파카(parka) 사용을 들 수 있다. 의복은 태양의 직사광선에서도 보호기능이 적

용되어 태양의 복사열이 143 kcal/hr 일때 흰색의 헐렁한 가운데 머리에서 발까지 덮었을 경우의 태양복사열은 1/2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¹⁶⁾.

또한 고습도에서는 레인코트를, 바람이 심한 환경에서는 윈브레이커(wind breaker)로 신체를 보호하며, 깊은 바다에 잠수할 때 당면하는 기압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이빙의복(diver suit)이 사용된다. 특히 우주복은 생명유지장치와 배설장치까지 고려한 의복으로 신체보호 뿐만아니라 생명유지까지 조절하기도 한다.

(2) 곤충이나 벌레로부터의 보호(NE-biological protection)

Knight Dunlop 가 주장한 것으로 동물의 적들 가운데 곤충으로부터의 보호가 이에 속하며¹⁷⁾ 동물에게까지 이용되어 파리로 부터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일본의 아이누(Ainu)족은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함으로써 곤충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하였다¹⁸⁾.

(3) 대적 환경으로부터의 보호(HBE-hostile environmental protection)

특수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복은 인체를 보호하며 bullet proof 조끼는 끝이 뾰족한 메카니칼 에이전트(mechanical agent)를 위하여, 전공들의 절연장갑은 신체적 에이전트(physical agent)를, 고무장갑과 보호용 앞치마는 산, 알카리를 위하여 사용되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같은 생물학적 에이전트(biological agent)를 위하여는 의사의 까운, 모자, 마스크 등이 사용되고 있다.

(4) 육체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육체의 편안성과 건강안녕을 위하여 의복은 하나의 육체기능을 지지할 수 있다.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집단인 노인이나 맹인, 지체부자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의복이 이에 속한다. 특히 저혈압환자에게 사용되는 half-pressure suit, 등이 아픈(bad back) 환자에게 특수용 롤센, 팔목이 아픈 환자(weak wrist patient)에게 사용되는 팔목밴드(wrist band)가 이에 속한다.

2) 심리적 보호

심리적 보호란 인간적 보호(MBE-HBE protection)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인간이 형성한 사회물리적 환경(socio-physical environments-S-P), 사회생물학적 환경(socio-biological environments-S-B), 행동적 환경(behavioral environments-B-E), 사회심리학적 환경(socio-psychological-S-PYS) 공공건물 환경(institution-IE)에서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려는 동기외에 심리

적 안정이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의복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의 원초적 단계에서 중요한 보호기능은 의식할 여지없이 육체 전체를 덮는 것보다는 신체의 일부분인 목이나 성기 주위에 부착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의 신체보호 보다는 주술적 유행적 보호기능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1) 주술적 보호

원시인들의 생각에는 모든 재앙의 원인은 신체생리적(space-time, physical, biological)상호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술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의 영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다른 사람이나 유행들의 힘에 의해서 기인된다고 간주하였고 많은 유해한 영향에 대하여는 counter magic 을 이용하였다. 예로 뉴기니아의 북세피그 지방의 원주민들은 앞치마 대신 색깔이 있는 수세미를 달고 다녔고 뉴·헤브르드조도의 타나의 남성들은 성기에 큰 카라코 다발을 감고, 그 끝을 꽃이나 풀로 장식하였다. 이것은 나라크란 마력으로 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의복의 주술적 보호기능은 후에 장식적 기능으로 발전하면서 장식적 기능과 주술적 기능이 공존 발달하게 되고 장식적 동기는 독립적 변인으로 발달하는 반면 주술적 동기는 부차적으로 되었고 현재에도 주술적 개념은 존재하고 있다. 의복의 현대적 주술적 동기는 목걸이, 반지에 사용되는 보석의 상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도덕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정신분석학자나 인류학자는 흉안은 생식의 힘이나 성기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였다^{21,22)}. 그러므로 원시인들은 악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는 성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g-string, sheaths, aprons, supporters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의복은 성적 공포에 대한 방어물로서 사용되고 성적 심벌의 주술적인 전시에 의해서 의복이 강화됨으로써 남근숭배 상징(phallic symbolism)의 중요성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복은 남근과 관계되는 도덕적 위협에 대한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도자의 의복은 수도자의 길이 좁고 끈은 길로 상징되며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하여는 그 좁은길을 정성스럽게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신체를 여러겹으로 감싸는 경향이 있다고 flügel 은 부연하였다²³⁾. 그러면서도 삶의 여유를 상징하기 위하여 여유있는 넉넉한 디자인이 채용되며 동시에 착용자에게는 영적 세계를 회상시키는 타이트한 의복이 사용됨으로써, 세상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장

의 의복재로도 견고하고 무채색 계열이 많으며 타이트하고 칼라는 뾰뾰한 것도 유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사람들로서는 목사, 신부 등과 같은 성직자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행사로는 졸업식, 장례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구시에 착용하는 의복의 분위기는 색상측면(color), 量적(amplitude) 측면, 두꺼움(thickness), 뻣뻣함(stiffness), 타이트한 정도(tightness)에 공통점이 있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²³⁾.

색상(color)—엄격성과 도덕적 순수함과 순결성을 상징하는 검정색 흰색의 무채색이 주로 사용된다. 可視光線에 의한 무지개빛의 화려한 색상은 감정의 자유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크기(amplitude)—성적 욕망을 자극 충동하는 신체의 근육적 부분을 가능한 한 완벽하게 덮어 버림으로써 성적 욕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두꺼움(thickness)—육체적 위협에 대한 두꺼운 의복의 실제보호 가치는 무의식적으로 도덕적 범주나 성생활의 범위로 확대된다. 갑옷을 착용한 기사도의 도덕적 전통 등은 이러한 연상작용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뻣뻣함(stiffness)—물리적인 뻣뻣함과 똑바름의 상징은 도덕적 결백, 견고성을 나타내며 의복이 헐거움과 단정치 못한 분위기는 이완된 정신세계와 상통한다.

타이트함(tightness)—육체를 압박하는 타이트함은 자신의 정신세계와 연결된다. 환연하면 자신의 욕망을 구속해주며 반대로 흐트러진, 방탕함의 분위기는 비도덕성과 상관된다.

(3) 사랑, 자유, 평등의 무의식적 상징으로 부터의 보호

도덕적인 면과 본능적 측면 사이에서의 타협점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심리적인 면 뿐아니라 문화적인 면이 반영된다. 즉 사랑, 자유, 평등의 무의식적 상징으로 부터의 보호개념은 추상적이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의복 행위를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⁴⁾.

익숙치 못한 HBE 나 NE 에 당면했을 때 의복은 인체와 환경과의 경계물로 사용된다. 특히 단추를 채우거나 의복을 더미거나 우리의 몸을 코트나 스카프 속에 사임으로써, 외계와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타동물에서도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거북이가 적대감이 있는 환경에서 자기의 머리를 갑옷속에 움츠리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flügel은 표현하였다. 상반적인 경우인 외계의 요소들과 내면의 존재가 접촉되기를 원할 때는 보호물인 의복으로부터 신체를 해방, 노출시

킴으로써 환영을 뜻하는 방법으로 손을 내어 벌리게 하는 인간 행위가 수반된다. 또한 자신보다 월등하게 느끼게되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없는 사람, 두려움을 느끼며, 마음에 맞지않는 사람과의 교체시에 의복은 하나의 경계물로써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유사한 예로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사람이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디에 나갈때 코트를 걸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 행위는 단순히 NE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예복과 예복을 입지 않은 타인과의 의복분위기 사이에 발생하는 거리감이나 적대감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일상복으로 화려한 의복을 감추고싶은 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야회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행위는 HBE 나 HCE에서 주위환경과 동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자유, 평등사상과 여성의 의복과는 상관성이 있어서 여성의 자유가 최소한으로 축소된 회교국가나 이조시대의 여성의 의복은 공공연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감추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후 자유, 평등, 박애의 슬로건의 영향으로 미시, 거시환경 요소로 작용했던 데코레테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의복은 가볍고 단순해졌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신체노출은 친구나 동료집단과 같이 평등한 환경에서만 허용되었다. 20세기의 민주주의 사상의 도입전과는 여성에게 자유가 더욱 부여되었으며 그결과 여성의 신체는 더욱 더 노출도가 증가하였다.

우울, 고독, 근심, 향수에 젖어있는 사람은 더욱더 따뜻한 의복을 착용하며 NE의 쌀쌀함과 S-pys 사랑과 의복과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기온의 차가 쌀쌀함을 상징하는 語彙는 "분갈은 정열" "따뜻한 포옹"과의 상대적 語意로도 사용되며 Thomas Carlyle은 사랑과 옷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인간보호라는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의복"과 "사랑"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편들은 죽은 아내를 표현할 때 "그녀는 외투처럼 어렵거나 냉혹한 세계로부터 나를 감싸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랑과 의복과의 관계는 사랑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의복의 보호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즉 사랑의 표시는 의복으로 전이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랑의 상징으로 어머니가 연상되고,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심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어머니를 따뜻함으로 연상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의 초기시절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모체의 추구심성은 flügel은 심

리분석의 자궁환상과 관계한다고 하였다.

자궁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추위 외에 적의가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피난처로 간주되고 이러한 심성때문에 자궁은 안전한 장소로 취급되어 NE, HCE의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rnest Jones는 모체의 자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는 차가움의 공포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는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이며 자궁으로 돌아가려는 상상의 단계는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온 위험을 없애고 병혹함에서 탈피하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냉정함을 혐오하며 의복은 차가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며 어머니가 보호적인 대상으로 등장한다. 어머니가 어려움과 병혹한 세계로부터 피난처가 된다는 인간비약 심성은 개인적인 다수성에 의해서 쉽게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도 초기 연령때부터 의복과 관련되어 표현된다. 즉 어린이가 의복을 입고 안입는 것을 조정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의복을 부적당하게 입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함으로써 모성애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의복을 많이 입도록 권장하고 따뜻한 속옷을 입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IV. 타이론과 보호론과의 관련성

의복을 착용하게 된 가장 오래되고, 일상적인 의식으로 착용하는 의복의 본능 동기(instinct theory)는 보호설, 장식설, 수치관념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가지 동기중 어떤 동기가 우선순위에 지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호설은 타이론과 비교하여 불매 현실적이며 사리에 맞고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이론이므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의복은 외기의 기온변화에 따른 의복기후를 형성하고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며 생체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의복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은 인간에게 해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의복의 인체유해설에 의하면 의복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암의 원인이

되는 carcinogenic, 유전인자의 배열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mutagenic,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teratogenic 한편과 피부염이나 습진의 영향을 주는 allergenic의 유독성이 있다고 본다²⁴⁾.

1. 보호론과 장식론과의 관계

신체의 일부분이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부착물이 장식화하였다. 즉 초기 예술형태는 순수한 미적 목적이 아니라 주술적 공리적 동기로부터 나왔으나 문화의 진보가 실용주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말살시킴으로써 장식설로 주장하게 되었다. 즉 주술적 기능과 장식적 기능은 공존하면서 발달하다가 장식적 동기는 독립적으로 변하며 장식설이 우선순위로 대두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의복은 수많은 형태로 진화하면서 형상을 이루어 장식적으로 보이나 사실상 의복은 유용성이나 실제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보호론과 수치관념론과의 관계

의복의 심리적 보호동기는 수치관념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하나의 변화는 다른 변화를 유발한다.

신체의 부분을 가리는 인간행동측면에서는 동일하나 보호적 의미에서의 의복의 사용은 긍정적인 것에 비하여 수치 관념적 측면에서의 의복의 사용은 인간행동을 억제하는 부정적 인간행위에 속한다. 또한 수치관념에서 발생된 수치기준은 시간과 장소, 성별, 문화권 등에 따라 다르며 억제변인도 다음과 같다.

신체노출의 억제행위는 성적, 본능적 원인에서 억제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억제될 수 있다. 또한 나체과시에 대한 억제와 사치스러운 의복에 대한 비난 이유에서 억제될 수도 있다. 억제 행위의 방향이 자기지향적(self-directed)일 수도 있고 타인지향적(other directed)일 수도 있으며 원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도 있고 혐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억제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의복의 심리적 보호는 수치관념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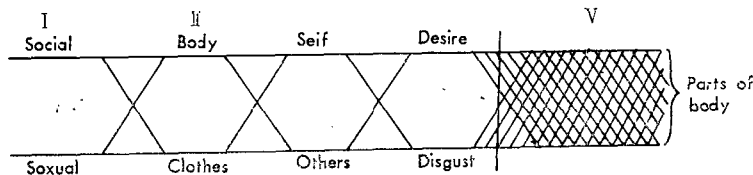


Fig. 3. modesty diagram

V. 결 론

참 고 문 헌

인간은 육체적 자아(somatic self) 사회적 자아(social self), 정신적 자아(spiritual self)로 구성되어 6주위사람들과 교제를 필요로 하고 NE와 HBE의 자극에 섬세하게 반응하므로 의복은 단순한 외부적 부착물로 간주하기보다는 사회적 필수 존재물로 인정해야 된다.

과거에는 주술적 심리적 보호목적으로 의복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장식설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장식의 기능이 성적 유혹, 승리감의 표시, 상대방의 공포심 조성, 부, 또는 집단이나 계층의 표시, 종교적 행사의 암시 등의 표현적 기능에 주축을 두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의복은 미적감각의 학습목적, 습관, 신념, 가치관의 강화로서 도구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래의 의복은 심미적 위생학 기술적, 경제적, 편이성 측면을 의식하여 쾌락주의적 윤리관에 프로이드의 심리학 원리를 합성하고, 유용성, 실제성의 기반을 실제 원치적 이론에 부합 조화를 이루어야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의복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심미적 측면에서는 의복의 장식성이 일차적이며, 유용성은 부차적이라는 순수 예술적 해석에서 탈피하여, 기능성, 실용성, 심미성이 병렬 공존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부차적인 응용예술 측면의 발달이 요청되기도 한다.

위생적 측면에서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육체기능적 측면이 고려됨으로써 NE, HBE적응에 활동적 자유로움이 부여되어야 하며 실제성에 기저를 둔 기술적 경제적 측면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복의 도구적, 표현적, 기능(instrumental, expressional function)을 위하여는 인간 욕구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외적(outer reality), 객관적 실제성(objective reality)에 대비한 단순한 지식적 인경은 탈피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의복의 보호적, 장식적, 수치관념적 욕구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실험미학적 영역에서 탈피한, 개성의 복합적 요소인 장식추구심성, 사회심리학적, 해부학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 원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복식연구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심미적 특수성과 피복과 연관과의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인체의 형태적 특징과 운동기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관련분야의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요청된다.

- 1) Roach-Higgins, Mary Ellen, *New Perspective-s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Manuscript in preparation for publication under grant from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 2) Ryan, Mary sha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81, (1966)
- 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84)
- 4)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p.13, (1983)
- 5) 이난희, *의복의 기원에 대한연구*. 복식 한국복식학회, p.146, (1982)
- 6)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46, (1984)
- 7) Horn, Maryiln, J.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pp. 12, (1981)
- 8) 앞책, pp.10~17
- 9) Gurel, Lois M. & M.S. Beeson,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a book of readings*,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third edition p.1~7, (1979)
- 10) Gruel, pp.13~14
- 11, 12) Bubolz, Margaret M., Joanne B. Eicher, and M. Suzanne Sontag, *The Human Eco system: A Model*, *J. of Home Economics* Spring, pp.29~31, (1979)
- 13) Roach-Higgins, *Dress adernment and social order*, John Wiley Sons, Inc., p.6, (1965)
- 14) 임숙자, *교복자율화에 따르는 지도문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p.11, (1982)
- 15) Flugel, J.C.,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pp.68~69, (1969)
- 16) 신인수, *피복위생학*, 동남문화사, (1985)
- 17) Ryan, Many sha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41, (1966)
- 18)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pp.13, (1983)
- 19) Flügel, pp.74~84
- 20) Langner, Lawrence, *The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Hasting House, pp.19~26, (1959)
- 21) Flügel, pp.74~84
- 22) 강혜원, pp.29~30
- 23) Flügel, pp.74~84
- 24) Nussdorf M.R. & S.B. Nussdorf, *Clcthes for*

- health, Stackpole books 1980
- 25) Brown, Ina Corinne.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 26) Papanek, Victor,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New York: pantheon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79)
- 27) Solomon, Michael R.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Books, (1985)
- 28) Hawes Elizabeth, Why is a dress, The viking press, New York, (1942)
- 29) Heard Gerald, Narcissus an anatomy of clothes. E.P. Dutton & Company, (1924)
- 30) Nystrom, Paul, Economics of fashion, The ronald press c,ompany 1928
- 31) 이선재, 의류학개론, 수학사, (1985)
- 32) 이순원, 김성련. 피복관리학, 교문사, (1977)
- 33) 임숙자, 의복의 기원과 기능에 대한 연구—장식의 기원과 기능을 중심으로—생활과학과 가정,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편 (1985)